



제주시 '택시사고'·서귀포시 '과속'... 안전도 취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지난해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 서귀포 D→E등급으로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 제주 C등급 10단계 올라... "렌터카 사고 요인 개선"

지난해 서귀포시의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나타났다. 반면 제주시는 전년보다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됐다. 제주시는 '택시 사고', 서귀포시는 '과속 사고'에서 교통안전도가 가장 취약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분부는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수다.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 규모에 따라 인구나 도로연장 등 교통 여건에 차이가 있어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해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점수·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인구 30만 미만인 서귀포시는 78.98점을 얻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전국 평균(79.45점)보다 낮고 해당 그룹에 속한 49개 지자체 중 46위였다. 전년(75.80점·D등급)

과 비교하면 개선율은 2.97% 떨어졌다. 영역별로 보면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부문이 E등급을 받아 교통안전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이상인 제주시는 78.98점을 얻어 C등급을 받았다. 전국 평균(73.19점)보다 높고 해당 그룹에 속한 29개 지자체 중 13위였다. 전년(69.08점·D등급)에 비해 개선율이 8.33% 올라 열단계 뛰어오르며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사업용자동차와 보행자 부문이 D등급을 받아 교통안전도가 가장 취약했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 영역 중 택시 사고가, 서귀포시는 운전자 영역 중 과속 사고가 각각 가장 취약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렌터카 사고는 60.42점으로 전년(9.79점)보다 517.6%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 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는 그동안 렌터카 사고가 매우 취약해 JDC와 협업해 사고 예방에 노력한 결과 렌터카 영역 교통안전지수가 전년보다 대폭 개선됐다"며 "아직 미흡한 교통약자, 택시, 과속 사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제주도의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화천군, 인천 계양구 등 4곳으로 조사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강력 반발 지속 반대 단체, 어제 오영훈 지사와 면담 의견 전달 "동성애 조장... 인권헌장 폐지 안하면 시위 계속"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 헌장' 제정이 반대단체의 거센 반발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지난 9월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시작과 동시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제정 반대 단체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를 도배하다시피하고 있고 집단행동까지 돌입했다. 이 가운데 20일 오영훈 도지사와 단체 대표자들간의 면담이 진행되면서 오는 12월 헌장 선포식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등은 면담이 이뤄지는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제정하려던 인권헌장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헌장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함에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 세워졌다.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일 제주도와 제주학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부터 10시까지 약 20분간 반대단체 대표 5명은 오영훈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 참여자들은 오 지사에게 평화인권 헌장 제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폐지를 하지 않을 시 집회 등 반대 의견 표출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단체는 "제주평화인권 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 한다는 것"이라며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채원기자

4기 학생인권참여위원 공모 도교육청, 내달 6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달 6일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제4기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제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는 4~6학년, 중학교는 전 학년, 고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이다. 학교급,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50명 이내의 인원을 모집한다. 임기는 1년이다.

공개 모집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도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내달 13일 개별 통보 및 학교로 안내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는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출정대회를 열고 과도한 기준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택시노동자들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어제 제주도청 앞서 출정대회... "이윤보다 안전"

제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제주도청을 향해 장시간 노동·저임금을 강요하는 과도한 기준금 개선안을 마련하라면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는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

대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도 법정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일 20만원·월 500만원'의 과도한 기준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인등기도 없이 수

천만원의 지입료를 납부하고 렌터카처럼 임대해서 운행하는 등의 지입·도급 택시가 만연해있다"며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이다. 도청은 단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윤보다 안전을 위해 투쟁을 선언한다"며 "임단투 승리, 적정기준금 표준안 마련, 탈법사업장 지도 및 감독 촉구 등의 요구를 담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원기자

SUV 차량 3m 아래로 추락 경찰,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제주지역에서 한 차량이 교량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8분쯤 제주시 용강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3m

교량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원기자

제보 전화 750-223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히트브랜드 대상 2회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춘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미서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리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한국요양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한국요양원 종사자 일동
T.064-727-7633
 제주시 은남2길 39 (연동)